

와홀리 — 물터진골과 퀘뜨르

김 경 훈

(시인)

물터진골과 퀘뜨르는 북제주군 조천읍의 중산간 마을이다. 제주시에서 동부산업도로를 타고 가다가 남조로 사거리에서 북쪽으로 오백 미터쯤 가면 바로 보이는 곳이 퀘뜨르다. 거기서 서쪽으로 다시 오백 미터쯤에 위치한 곳이 물터진골이다. 물터진골과 퀘뜨르는 각각 수기동(水基洞)과 고평동(古坪洞)이라는 한자식 이름으로 개명되었고, 행정구역상으로는 북제주군 조천읍 와홀리에 속한다. 읍소재지인 조천리 해안에서 직선 거리로 약 8킬로 정도 되고, 인근 교래리와는 약 4킬로 거리에 있다.

남조로 사거리에서 내려가는 길은 비교적 찾기가 수월한 편이지만, 조천리에서 와홀로 올라가는 길은 자칫 낭패를 당하기 쉽다. 와홀 큰 폭낭 사거리에서 계속 차를 몰면 보통 남쪽으로 직진을 하게 되는데, 이 길은 동부산업도로와 연결되는 간선도로일 뿐이다. 어느 마을의 '2리'는 보통 본리의 바로 위쪽에 있는 마을로 생각하기 쉽지만 퀘뜨르는 지리적으로 오히려 대흘 쪽에 가깝게 자리잡고 있으며, 가는 길도 대흘을 거쳐 올라가는 길이 직행이다.

그러나 퀘뜨르 물터진골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길은 직행길만은

아니다. 때로는 직선 주로로, 때로는 굽경사길로 나타난다. 그 길에는 눈물과 한숨이 있고 충격과 경악이 있으며, 분노와 좌절이 있다. 그 길에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뼈아픈 기억을 불러내는 쓰라린 고통이 있다.

물터진골과 케뜨르는 4·3을 거치는 동안 집단방화와 대량학살로 마을이 완전히 폐촌이 되어버렸다. 4·3의 소용돌이는 마을의 역사를 절단내는데 그치지 않고 삶의 터전인 땅마저 앗아가 버렸다. 부모 잃고 정든 마을에서 쫓겨나 해안 마을에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살던 마을 주민들은 목숨을 이어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토지 브로커들에게 쌀 몇 되에 그들의 땅을 넘겨야만 했다. 때문에 금족령이 풀린 뒤에도 그들은 집도 밭도 고향도 다 잃고 철저히 자기의 땅에서 유배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케뜨르에는 현재 16호에 58명이 살고 있는데, 한 집을 빼고는 모두 다른 마을에서 올라온 사람들과 육지부에서 들어왔다가 정착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 물터진골은 사정이 더 나빠 단 한 집만이 살고 있을 뿐이다.

내가 취재를 위해 케뜨르에 들른 때는 마침 2월 11일, 음력 정월 대보름 날이었다. 행정구역상 와흘리 8반에 속한 케뜨르 주민들이 8월 대보름과 함께 1년에 두 번 여는 반회(班會)를 하고 있었다. 케뜨르 토박이 김동규(60)의 집에 하나 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아줌마, 대여섯살 어린이들부터 나이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들이 몰려와 시끌벅적 사람사는 냄새를 물씬 풍기고 있었다.

상조금을 누가 얼마를 썼네, 이자가 얼마네 하는 얘기가 오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술자리가 이어졌다. 풍성하지는 않았지만 소박하고 정겨운 자리였다. 김동규는 “옛날에는 돈을 거둬 소도 잡고 옷판도 벌이고 떠들썩하게 놀았었다”고 회상하였다.

나는 그 정겨운 자리에서 처참한 죽음과 비참한 삶이 교차되던 50년 전의 상황을 떠올리고 있었다. 바로 이 마을 이 자리에서 숨막히는 공포와 치떨리는 학살의 전율이 있었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옛



▲ 웨뜨리(고평동)의 표석.

날이라 하기에는 가까운 50년 전의 상황이 그들의 삶에 질곡으로 놓여 있었다.

마을의 유래

‘웨뜨르’는 ‘웨’ (약간 작은 굴을 가리키는 말)가 있는 ‘드르’ (들)라는 뜻에서 붙은 이름이다. 조선시대에는 웨평동(櫃坪洞)이라 불리던 것이 일제 침략기에는 고평동(古坪洞)으로 바뀌었다. 현장을 답사해 보니 실제 웨뜨르에는 크고 작은 웨들이 있었다. ‘물터진골’은 큰물이 지면 내(川)가 터져 마을 안까지 침수된다는 뜻에서 붙은 이름이다. 그래서 수개동(水開洞)이란 한자 표기로 쓰다가 일제 침략기에 수기동(水基洞)으로 바뀌었다.

해발 455미터의 바늘오름을 맥으로 아래로 약 5백 미터 지점에 사망 능선으로 둘러싸인 자그마한 곳에 속칭 짐승못이란 물이 있다. 마을 이름은

바늘오름 좌우측에서 물이 흘러 짐승못에 모였다가 아래로 흘러간다 하여 물터진골이라 하였다.

수기동에서 동남쪽 약 5백미터 거리에 위치한 속칭 버들못 위쪽 밭에 위가 평평하고 작은 궤가 있어 마을 이름을 궤뜨르라고 불렀다.¹⁾

그러나 조천읍의 중산간 마을은 비단 궤뜨르뿐만 아니라 어디나 크고 작은 궤가 많다. 유독 궤뜨르의 ‘궤’가 이름에 붙여질 만큼 특별한 이유는 달리 확인할 길이 없지만, 이 마을의 궤가 조선시대에 죄인이나 병자의 수용소 역할을 했었다는 증언을 통해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었던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옛날에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마을 밖으로 추방을 시켰지. 여자들도 음행을 저지르면 덕섬몰이를 하듯이 죄 지은 사람을 한 마을에서 같이 살 수 없다고 쫓아내면 그 궤 옆에 집을 지어 살아났지. 그 살아난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어. 그러니까 그 궤는 아무 것도 아닌데 이름이 났었다고 하더라고. 또 호열자같은 돌립병에 걸리면 거기서 떨어져 살아났지. 가시나무같은 걸로 율타리를 둘러서 접근 못하게 막아났지. (김동규, 60, 조천읍 와홀리)

궤뜨르와 물터진골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적어도 3백년 전부터로 짐작된다. 김민규의 『조천읍지』에는 이 마을의 설촌 유래를 250년에서 270년 전으로 보고 있다. 약 270년 전에 “현재 신촌리 거주 김평수씨의 고조부 김해김씨 김영신이 살림이 궁색하여 살 곳을 찾아 하눌(대흘)로 왔으나 정착할 곳이 마음에 들지 않아 올라간 곳이 버들못이며, 사방이 광활하여 우마 기르기에 좋고 화전을 하기에 좋아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 사정이 좋지 않았던 모양이다. 우물은 고사하고 버들못도 식수로 쓰기에는 별로 적당하지가 않았다.

1) 김민규, 『조천읍지』, 274쪽.

버들못에서 빨래도 하고 길어다 먹기도 하고. 우마가 먹는 물도 바로 붙어 있으니까 돌로 경계를 지어서 요건 고운 물 저건 굵은 물 갈라서 썼어. 굵은 물이라고 한 데서는 채소도 씻고, 하지만 고운 물이라고 한 데도 물이 썩어서 시퍼렇게 되어도 그걸 길어다가 먹고 그렇게 살았주. 지금같으면 먹지도 못할 물이라.

(고인생, 74, 여, 조천읍 대홀리)

물터진골도 퀘뜨르와 비슷한 시기에 설촌되었는데, 퀘뜨르보다 먼저 형성되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형성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현재 신촌리 거주 김태석씨의 고조부이며 경주 김씨 입도 15대 손인 김명천이 남원면 의귀리에서 살다 살림이 궁색하여 살 곳을 찾아 해마다 속칭 짐승못에 도달하여 정착하였으며, 차차 사람이 모여들게 되니 식수에 불편을 느껴 짐승못 곁에 식수로 이용할 물을 고이게 장소를 만들어 '새통'이라고 불렀다. 마을을 설촌한 김태석씨의 조부는 백여 석의 곡식을 거두었으며 축우마도 백여두 사육한 부자가 되었고, 마을에는 10여호가 살았다.²⁾

이렇게 되면서 물터진골은 경주 김씨 집성촌화해서 일가 친척만 10여호 이상 살게 되었다. 그들은 농사와 목축을 겸하면서 비교적 부유한 삶을 살았다. 김태석의 백부 김유관은 조천면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부자가 되어 비농뱅디(바늘오름 옆 들판)에서 서쪽으로는 '죽은 지 그리오름'과 '새미오름' 일대까지 그의 땅을 밟지 않고는 다닐 수 없다는 소문이 날 정도였다.

일제 침략기 — 공출과 징용

일제 때는 우리 백부의 재산이 좋아서 소문난 김씨 집안이었지. 땅이 몇 수

2) 김민규, 앞의 책, 274쪽.



▲ 켄트르당. 일제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서 산신일월을 모시는 곳을 했었다고 한다.
곳은 4·3 이후에 중단되었고, 신목인 팽나무도 말라서 길게 누워 버렸다.

십만 평이 되는 줄도 모를 정도니까. 길 옆에 붙은 밭들도 전부 문뜩문뜩한게
땅이 좋고 곡식이 잘 되니 웃노릇하면서 살았지. 인정있고 덕망이 있어 와홀 2
구 구장도 해나고. (김태석, 92, 조천읍 신촌리)

옛날엔 우리도 잘 살아난 걸로 알고 있지. 마소도 많이 했고 땅도 많았어.
일제시대에는 중산간 마을이 더 잘 살아났다고 하지. 비료가 없을 때니까 우
린 퇴비, 거름을 많이 주니까 곡식이 잘 된 거야. 켄트르에 불미통(대장간)도
있고, 물방애도 여러 개 있었지. (김동규)

그러나 아무리 잘 살았다고는 하지만 일제시대에 그들도 일제의 식민
지배 통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다른 마을에서와 마찬가지로 보리,
조같은 곡식뿐만 아니라 소, 돼지를 비롯한 모든 가축이 공출 대상이었
다. 면사무소에서 할당량은 책정하면, 면직원들이 득달같이 할당량을 채

우려고 혈안이 되어 돌아다녔다.

공출량을 채우려고 면직원이 몰려와서 가택수색을 해냈어. 고팡(창고)이나 헛간도 뒤져서 곡식이고 숟가락이고 다 강제로 훑어 갔지. 쇠도 일곱 살 난 쇠를 돈도 몇 푼 안주고 공출했어. 쇠를 끌어 케뜨르에서 한림 도수장까지 끌고 갔었지. 일제 말기가 되니까, 그 몇 해는 정말로 살기가 어려워났지. 공출로 정용으로 없는 밥에 숟가락 빼앗아가는 격이라.

(김두옥, 86, 조천읍 조천리)

와홀리에서 일본으로 징용 간 사람은 다섯 명 가량이었다. 조천면에서 할당된 인원은 2백명 정도였는데 와홀 2구에서 이원일과 김병옥 2명이 끌려 갔다. 일제 말기 대동아 전쟁이 치열해질 무렵에는 공출뿐만 아니라 징용과 징병도 많았다.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대부분 죽어버려 돌아온 사람은 몇 안되었는데, 이에 비해 김병옥의 경우는 좀 특이했다.

내 동생이 김병옥이라. 북해도 탄광에 끌려갔는데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 초소도 있고 철조망도 둘러었다고 하는데 용케도 도망을 쳤어. 거기서 도망쳐서 대판까지 갔다고 해. 어릴 때부터 몸이 빠르긴 해났지마는. 그후로도 잡히지 않고 거기서 살다가 10여년 전에 죽었어. 결혼도 안하고. (김두옥)

징용 대상자는 구장이 선정했어. 난 그걸 알아. 내가 16세 때인데 정뜨르 비행장 지을 때 징용 나가났주. 면사무소에서 조천지서 앞으로 나오라고 하길래 나가 보았더니 일본놈이 대뜸 나에게 몇 살이냐고 묻는 거라. 나이를 말하니까 왜 어린 사람을 뽑았냐고 구장에게 욕하는 거라. 아 그래서 구장이 나를 선택한 것으로 알았지. (강인조, 70, 조천읍 신촌리)

4월 3일

해방 후에 조천읍 와홀리에서는 와홀리 인민위원회가 결성되어 백일현³⁾이 인민위원장을 맡는다. 무장대 사령관 김의봉⁴⁾이 1947년에 구장(區長)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조천읍에 있는 대부분 마을이 그러하듯 와홀리도 소위 '민주부락'으로 불릴 만큼 무장대의 세력이 강한 지역이기도 했다. 이들을 중심으로 1948년 4월 3일 와홀에서도 봉화가 올랐다.

봉화 오르는 것도 봤지. 와홀에 있는 '그시내오름'에 불이 오르면 '바늘오름', '새미오름'에 불이 오르고, 삼양 '원당오름'에서도 곧바로 오르고 해났지. 여기 수기동에선 바늘오름에서 오르는 것이 제일 흰하게 잘 보였어.

(강인조)

와홀 위쪽에 있는 '바늘오름'이나 '검은오름'에 무장대 근거지가 있어서 주민들은 그들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또 와홀 2리에서는 김○○ 및 그 일가에서 입산 활동을 한 이가 있었다.⁵⁾ 마을 내에서도 '왓샤 행진'이

3) 당시 58세, 조천읍 와홀리 하동 출신. 목포형무소 이송 후에 행방불명되었다. 당시에 아들 둘이 죽었다.

4) 삼양 간이학교 졸업. 일제 때 와홀리 청년회 단장으로 마을에서 신임을 쌓고, 8·15 이후 와홀리장 역임. 입산 후 1949년 6월 7일 이덕구가 죽고 나서 뒤를 이어 사령관이 됨.

5) 여기서는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입산활동을 한 이유로 죽음을 당해 대가 끊어진 집안이 많기도 하거니와 취재 대상자들이 극도의 피해의식으로 모두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물터진골과 제프르는 작은 마을인 데다가 거의가 친인척 관계로 얽히고 설켜 있어서 더 이상 혼인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 이유로 누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증언을 회피한다. 또 다른 증언에 의하면 손가락질(무고)로 마을 사람들을 죽게 만든 이가 있어 마을의 인심이 크게 나빠졌었다고도 한다. 이는 철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독자들의 양해를 바란다. 다만 제프르와 물터진골 김씨 집안에 각각 무장대 활동가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덕구와 함께 활동했다는 증언이 있다. 이들은 4·3 당시에 모두 죽거나

여러번 목격되었으며, 주민들은 마을에 있는 상의동산이나 높은모루동산에서 보초를 서기도 하였다.

5월 10일 제헌의회 선거가 다가오자 조천면은 선거관리위원들이 대거 사임하는 등 선거를 제대로 치뤄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조천면의 대흘, 와산, 와흘 등 중산간 마을에서는 무장대의 습격에 겁을 먹고 선거를 앞두고도 투표함 운반을 하지 못한 채 골치를 앓고 있었다. 면사무소에서 고만하던 끝에 때마침 조천 마을에 살며 옛장수 생활을 하던 타도 출신 한 명을 고용, 지게 위에 투표함을 싣고 우선 대흘 마을에 보내는 교육책을 쓰기도 했다. 그런데 그 옛장수는 산사람들에게 납치됐는지, 아니면 스스로 자취를 감추어버렸는지 알 길은 없지만 종적이 묘연했다.⁶⁾

여기서 당시 조천면의 상황을 잠깐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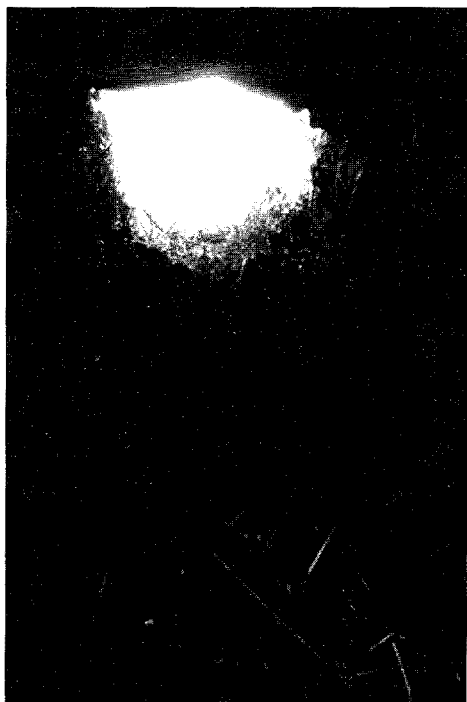
- 4. 3 무장대, 조천지서 습격. 무장대 1명 사망, 경찰 1명 부상.
- 4. 14 무장대의 조천리 습격으로 경찰 1명 사망. 밤 11시 경 제습격.
- 4. 15 밤에 와흘리 지경 경찰관 집 방화, 집주인 살해.
- 4. 19 아침에 신촌리 투표소 피습. 선거인 명부 상실.
- 4. 21 밤 11시 경 북촌리 선거사무소 습격.
- 4. 24 조천면 바늘오름에서 전화선을 자르다 2명이 경찰에게 피살.
- 4. 30 새벽 3시 30분 경 함덕에서 대청단원 1명 납치당함.⁷⁾

이처럼 당시는 선거 보이코트를 둘러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순

육지 형무소로 이송된 후 행방불명되었다. 이로 인해 김씨 집안은 거의 멸족 상태에 이르고, 4·3이 끝난 이후에도 특히 물터진골에는 전혀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될 뿐만 아니라, 주민이 없는 땅들은 모두가 타인 명의로 이전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6) 제민일보 4·3특별취재반, 『4·3은 말한다』 제4권, 전예원, 1997, 210쪽.

7) 제민일보 4·3특별취재반, 『4·3은 말한다』 제4권과 미24군단, 미6사단, 「G-2 정기보고서」,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 퀘트르의 퀘.

4·3 당시에는 퀘 입구를 나
뭇가지로 막아서 이 속에 숨어
지내기도 했다고 한다.

간이었다. 와홀 2리 주민들도 선거를 거부하고 자기의 밭에 나가 일을 하거나 바늘오름 근처로 잠시 몸을 숨기기도 하였다. 이 날 이 마을에서는 전혀 투표가 치뤄지지 않았다. 이 선거 거부 사태로 미군정은 경비대뿐만 아니라 경찰병력도 대폭 '증강시키게 되고, 이로써 대대적인 유혈사태를 예고하게 된다. 이 당시 와홀 2리에 경비대 병력이 주둔해서 두 달 가량 훈련을 하다가 내려갔다는 증언이 있다.

5~6월엔가 수기동 쪽에 경비대 군인 150여 명 정도가 주둔해났어. 거기로 차출되어 가서 군인들 심부름도 하고 길 안내도 해났지. 군인들과 주민들 사이에 어떤 충돌도 일어나지도 않았고 훈련만 계속하는 모양이었어. 그 군인들 갈 때에는 군복 상의도 주고 양말도 주니까 그걸 입었었지. (강인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와홀 2리에서는 11월 13일까지는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일어나지 않았다. 젊은 사람들은 낮에는 산속으로 피신하였고, 마을에 남은 노약자와 아녀자들에게도 계속 연락이 취해졌기 때문에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원래 이 마을 출신 경찰관도 없었거니와 마을 전체가 하나의 친인척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특별하게 모가 난 사람이 없어 무장대들에게 특별히 지목을 당할 일도 없었다. 강인조씨의 증언대로라면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경의 토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이런 것일까. 이 자그마한 혈연 공동체에 이제 광란의 학살극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그 누가 알았으랴.

1948년 11월 13일

북제주군 조천읍은 4·3 당시 가장 큰 인명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남로당 제주도당 위원장 안세훈과 유격대 사령관 이덕구·김의봉 등 무장대 중심 세력이 넓게 포진되어 있었고, 그만큼 주민들에 대한 영향력도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대토벌기를 거치면서 더 많은 인명피해를 내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기습과 보복의 악순환은 결과적으로 무고한 주민들의 희생이라는 참극을 불러왔다.

무장대는 1948년 11월 4일 조천지서와 면사무소를 습격하여 면사무소를 불태우고 우익인사 1명을 살해하고 떠나 버렸다. 이 사건은 더욱 강경한 토벌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다. 이 날 조천과 인근 함덕 신흥리의 주민들이 다수 토벌대에게 희생되었다. 그러자 11월 11일 새벽 무장대가 다시 조천리를 습격하여 우익인사를 살해하고 30여 채의 집을 방화한 다음 신안동 와홀리를 거쳐 도주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무장대는 십여 명이었고, 모두 일제 99식 소총을 들고 있었다고 한다.⁸⁾

함덕리에 주둔하던 경비대 9연대 2대대는 무장대의 뒤를 쫓으면서 와홀을 거쳐 대홀까지 올라갔다. 무장대를 놓친 군인들은 화풀이라도 하듯 와홀리에 집단 방화를 하고, 대홀2리(곶은다리) 주민들을 대거 총살하고 떠났다. 이 날 와홀리 주민들은 군인들을 피해 인근 와홀굴로 대거 피신하지만 미처 대피하지 못한 노인 1명이 불에 타 숨졌다.

그때 무장대가 조천지서를 습격하고 와홀로 해서 올라간 거라. 군경이 토벌하러 올라오면서 총소리가 탕탕 나고 하니 우리는 모두 와홀굴에 숨었지. 이불 하나 가진 것 없이 굴 속에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있노라니까 누군가가 울면서 말을 하는 거야. “이젠 다 나옵쎬. 이젠 살아수다”고 하는 거라. 나와 보니까 마을이 전부 불에 타고 있었어. 한 두 채를 빼고는 전부 불에 타버렸지. 그때 운신을 못하는 박유행 할아버지가 집 안에서 불에 타죽었지.

(고경림, 67, 조천읍 와홀리)

그러나 이것은 학살의 전주곡에 불과했다. 11월 13일 송당에 주둔했던 9연대 주력부대는 새벽에 교래리를 기습하여 마을을 방화하고 주민들을 집단학살한 다음 날이 밝을 무렵 와홀 2구로 이동했다. 와홀리는 당시 와홀 1구(본동)와 와홀 2구(고평동, 수기동)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와홀 2구는 약 40여 호에 2백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와홀 1리는 이틀 전 마을 방화에도 불구하고 큰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와홀 2구는 이날 40여 명의 목숨이 희생되었다. 대다수가 부녀자나 노인들, 어린 아이들이 이 날 목숨을 잃었다. 젊은이들은 이미 근처 야산으로 피신해 있으면서 더러는 이 광경을 목격했다.

물터진골이 불타는 걸 근처에 숨어서 지켜 보았는데, 총소리가 나도 설마 사

8) 임완송(67, 조천읍 와홀리)의 증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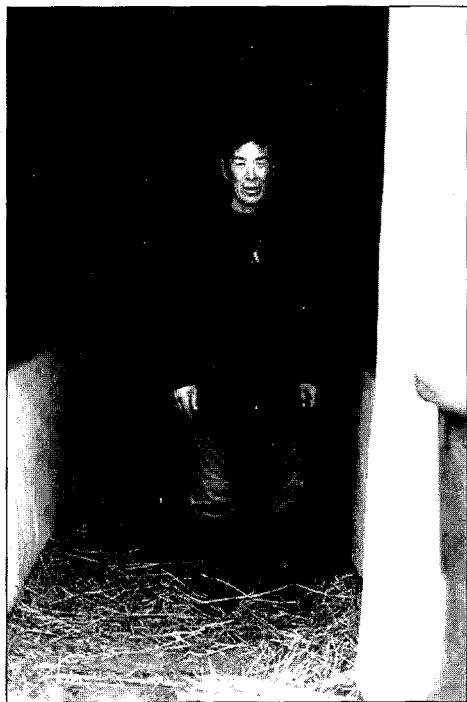
람 죽이는 걸로는 생각도 안했지. 서너 시간 후에 현장에 가보니까 처참한 모습이었어. 마을 옆에 숨어 있던 아주망 하나, 하르방 하나 살아 있고, 나머지는 전부 죽어 있었으니까. 어린 아이를 안은 아주망은 창자가 터져 불룩불룩 거리면서 물을 달라고 겨우겨우 말을 하는데, 총을 맞은 사람에게 물을 줄 수도 없고, 무슨 약이 있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보기만 할 수밖에 없었어.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고… 다른 담벼락 옆에는 할머니하고 애기들이 엮어져 죽어 있었는데, 그 할머니는 앞도 안보이는 사람이었지. 군인들은 늙은이고 아이고 가리지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총으로 쏘아 죽여버린 거야.

(강인조)

김경생(여, 89, 조천읍 대흘리) 할머니는 그날 새벽에 누군가가 피하라는 말을 들어서 시동생과 함께 덩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집에 불이 붙는 소리가 나도 겁이 나서 꿈쩍도 못했었다. 날이 어두워져서 나와 보니까 참으로 기가 막혀 몸이 덜덜 떨렸다. 김용화 어머니가 며느리와 함께 갓난 아이를 안은 채 셋이 함께 불에 타 죽어 있었다. 애기가 생후 일주일도 안된 때였다.

그러면 왜 이 날 희생자들은 집에 있다가 참화를 당해야 했을까. 이에 대해서 김만석(78, 여, 조천읍 와산리) 할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셋아주망 친정이 신촌인데 친정에 오가면서 풍문에 듣기로, 집에 사람이 있으면 집도 살고 사람도 사는데, 사람이 없는 집은 사람도 죽이고 집도 태워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네도 며느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디 나갈 수 있습니까? 보니까 저 케뜨르 쪽으로부터 한 집 한 집 불을 붙이며 오는데 ‘아마도 저건 집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불은 계속 불어 오고 총 소리, 사람 죽어가는 비명 소리도 들리고… 상황이 그렇게 되어가니까 올케와 어린 조카들이 전부 어머님한테 모여 드는 겁니다. 거기로는 도중에 전부 총 맞은 겁니다. 아주망, 여섯 살 난 여자 아이, 애기들… 어머



◀ 케뜨르의 유일한 원거주자
김동규씨.

님은 문지방에 앉어져 있고. 우리 큰 오빠가 와서 보고는 우선 어머님부터 밖으로 모셨는데, 뒷뜰 쪽에 짚풀 속에 던져져 나무토막같이 다 타버렸습니다.

이 날 또 아랫 마을인 신촌리에서 피난 온 여자들도 8~9명 같이 죽임을 당했다. 이들은 무장대의 조천 습격 이후 뒤숭숭한 분위기를 피해 살기 위해서 중산간의 덤불이나 동굴을 찾아 숨어든 사람들 중의 일부였다. 그들 중의 일부는 바매기오름이나 영림소(조천읍 교래리 위쪽의 밀림)까지 들어갔었다고 한다. 신촌 여자들은 물터진골과 케뜨르 가운데에 있었던 몰방엿간으로 모여들었다.

그때 신촌에서 홍씨 아주망과 여자들 여럿이서 여기로 피난을 왔었지. 나는

군인들은 보이는데로 다 죽이니까 어서들 다 피하라고 말해 주었는데, 그들은 설마 하는 식으로 그냥 몰방앗간에 있었던 거라. 방앗간에서 곡식을 찧는 여자들을 설마 죽이기까지야 하겠느냐는 생각이었겠지. 하지만 군인들은 일인 반구의 말도 없이 총으로 쏘아 죽이고 방앗간도 불을 붙여 버렸어. 나중에 가서 보니 시체들도 반은 타 있고... 후에 신촌에서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구루마를 끌고 시체를 실어 내려갔지. (강인조)

이렇게 마을이 불에 타고 처참한 주검들이 뒹구는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숨었던 곳에서 나와 시신을 한 구씩 한 구씩 수습하고 가매장을 하였다. 불에 타서 시커멓게 그을린 시체, 머리가 터져 허연 뇌수가 쏟아져 나와 있는 시체, 총에 맞아 검붉은 피가 낭자한 시체들... 이 날 희생된 사람들은 37명으로 보고되고 있다.⁹⁾ 그러나 취재과정에서 발견한 약간의 오류¹⁰⁾를 제외하더라도 증언자들은 40명 이상이라고 공통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11월 13일에 희생된 사람들 중에서 확인된 명단은 고인석(여 75), 김두일(73), 김동규 외조모(70대), 강진호(여 69), 장인선(여 65), 허태인(여 59), 김동규 외숙모(60대), 고평수(여 55), 김태행(55), 김태행 처(여 55), 김명희(여 48), 김용화의 처(40대)와 아기(1), 박영화(여 33), 김인화(여 28), 한정돈(여 27), 김창효의 처(20대), 고성순(여 19), 강태순(13), 김정자(여 8), 김종찬(7), 강태범(4), 강태순의 동생(2), 김창효의 딸 둘(3살, 1살), 김우석의 아들과 딸(3살, 2살) 등이다.

또 이 날의 총상과 화상의 후유증으로 김춘근(70)과 김동규의 조모(70)가 일주일을 전후해서 죽었다.

9)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주도 4·3피해 조사보고서(수정·보완판)』, 1997.

10) 김석홍의 경우도 이 날 죽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김석홍은 11월 13일 이후 굴에 숨어살다가 잡혀 신촌지서 경찰에게 신촌 열녀문 앞에서 총살되었다. 또 김길홍은 육지 형무소로 이송된 후 행불이고, 김창식, 김창오, 김창옥, 김창중, 김창효 등 김태행의 다섯 아들들도 이 날 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마을의 젊은 남자들은 피신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신고자의 착오이거나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인 소개명령도 없이 벌어진 무모한 보복 학살극에 두 마을의 역사와 삶의 공동체가 완전히 꺾어버린 것이다. 이 날의 학살과 방화에 대해 강태원¹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시 와홀 2구에는 23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그 날 희생자가 없는 집이 별로 없습니다. 4·3기간 동안 18가구는 가족이 전멸했고, 3가구는 가족 중 일부가 죽었습니다. 2가구를 제외하곤 모두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우리 집의 경우, 그 날만 동생 강태순(13)과 호적에 올리지 않은 동생 강태범(4), 그리고 이름조차 짓지 않은 두 살난 동생이 죽었습니다.¹²⁾

이 증언을 보충해 주는 또 하나의 사실은 “그때 우리 와홀 2리에는 강순원이네 식구하고 차정호네 식구만 빼면 다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었다”는 김경생 할머니의 증언이다. 김할머니를 비롯해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아남은 자의 도리로 우선 가매장을 치루고 서둘러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겨야 했다. 군경 토벌대들이 또 언제 불시에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낮에는 숨었다가 밤에 내려와서 시신을 수습하기를 몇 차례 반복할 때 해안 부락으로 소개하라는 명령이 전해 내려졌다. 11월 21일(음력 10월 21일)이었다.

해변 마을로의 소개

소개령이 내리자 마을 사람들은 각기 연고를 찾아 조천이나 신촌, 함덕 등 해안 마을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런 가진 것도 없이 빈 몸

11) 구좌읍 송당리에 거주했었으나 내가 이 글을 위해 증언을 부탁하려고 전화했을 때는 이미 고인이 된 후였다

12) 제민일보 4·3특별취재반, 『4·3은 말한다』 제4권, 전예원, 1997, 404쪽.

만 달랑 내려간 그들로서는 당장 입에 풀칠하는 것부터가 삶의 중대사였다. 두 살난 딸을 데리고 함덕으로 내려간 고인생 할머니는 당시를 이렇게 말한다.

아이고, 사는게 사는게 아니라났지. 친정 부모네도 식구가 여럿이니 우리 먹일 식량이 어디 있어? 툇을 주워다가 툇은 한 술이면 보리쌀 두어 사발 놓아 죽을 썬서 먹고 살았어. 그저 죽지 않으려고 먹으며 살았주. 그때 주위에서 보면 호린 좁쌀에 팔 섞은 밥을 해서 먹는 것을 보면 우리도 살았다가 나중에 저런 밥을 해서 먹어질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 배고프니 눈이 벌개져서 누가 쌀 한 방울이라도 주겠다면 입은 옷이라도 팔 생각을 할 정도였지. 제대로 먹이지 못한 딸은 결국 마마 홍역으로 죽고 말았어.

소개지에서의 삶은 비참하고 쪼들린 생활의 연속이었다. 이는 당시를 살았던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김만석 할머니의 경우는 좀 더 비극적이다.

나도 당시에 애기를 셋 데리고 신촌으로 소개 내려 갔는데, 아버지는 4·3 이후에 정신이상이 되어 버렸지. 그래서 나도 부모 죽어버린 세 살, 다섯 살 난 조카들을 제대로 돌봐주지도 못했어. 풀이라도 뜯어먹여 살려야 하는데. 그 아이들은 외할머니한테 가서도 조금 살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정신이 조금 돌아오니까 신촌에서 새 어머니를 맞아서 아이들 데려다가 머리 빗겨주고 먹고 사는데 팔자가 굵기도 원, 또 계모가 먼저 죽어버리는 거라. 그 아이들 지금 육지서 살고 있어. 큰 아이는 애기 딸린 남자한테 후처로 가고, 작은 아이는 동두천 갔어.

노약자나 아녀자들이 먼저 내려간 다음 산속에서 숨어지내던 남자들도 하나 둘 해안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계속 산에 있으면 폭도로 간주해서

무조건 사살하겠다는 소리에 내려간 것이다. 처와 누이동생을 잃은 김두 옥씨도 혼자서 조천으로 갔다. 조천지서에 신고를 하고 취조를 받다가, 별다른 혐의도 없었지만 군대에 가면 살려준다는 말에 그는 서른 다섯의 나이에 군대에 자원입대하고 말았다.

한편 고경림씨는 신체부자유자라는 이유로 일찍 해안 마을로 내려갔다. 축성을 하는 데는 동원되지 않았지만 연설회다 뭐다 하면서 항상 소집되어 가면 못볼 꼴을 자주 보곤 했다고 한다.

신촌 사람이나 소개내려 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공개 총살도 여러 번 했어. 하루는 산에 숨었다가 잡힌 여자 하나를 데려다가 옷을 전부 벗기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온 마을 돌렸어. 빨갱이 본을 보이겠다는 건지 뭔지. 그러다가 또 죽이고...

한편 수기동 근처에 굴을 파서 동네 사람 4명과 함께 숨어지내던 강인조씨도 결국엔 발각되고 말았다. 4명이 들어가면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웅크리고 지낼 정도의 좁은 굴 속에서 낮에는 꿈쩍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밤이 되면 식량을 구하려고 수기동이나 와흘 근처에도 갔다 오곤 했다. 이때도 가끔 무장대를 볼 수가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네 때문에 피난 다니는 것으로 알아서인지 고생한다고 말 하면서 소고기도 좀 나눠주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일행 중 2명이 다른 곳으로 가서 지냈는데, 그들이 잡혀서 굴 위치를 경찰들에게 말해버리는 바람에 당시 구장을 했던 김석홍씨와 같이 잡혀서 신촌지서로 끌려갔다.

김석홍씨는 우직하게 ‘죽일테면 죽여라’고 그렇게만 말하고는 입을 닫아버리는 거라. 그래서 경찰들이 신촌 열너문 앞으로 끌고 가서 총살해버렸어. 나는 전에 경비대 군인들이 주고 간 군복 옷도리와 양말을 신고 있었는데, 경찰들이 그걸 보고 마치 나를 9연대에서 입산한 군인으로 보는 거야. 난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지를 않아. 매도 많이 맞고 고문을 당해도 아니라고 우기니까 제주시 헌병대 정보과로 넘기는 거라. 거기서 중대장이 수기동 주둔할 당시의 군속 노무자 명단을 확인하니까 내 이름이 있는 거라. 그래서 풀려나온 이후로 군인들 길 안내자 노릇도 하다가 해병 3기로 군대에 갔지.

군대에 간 사람들은 그나마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젊은 남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죽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12월 21일 이른바 박성내 사건이 그것이었다. 토벌대는 소개된 주민들 뿐만 아니라 해변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른바 '자수'를 권했다. 산에 쌀 한줌이라도 올린 사람이거나 털끝만큼이라도 양심에 가책되는 일이 있는 사람은 자수하라고 했다. 한라산에 3일 정도 토벌을 다녀오면 양민증을 발급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군주둔지인 함덕국민학교를 찾아간 자수자들은 2주 후에 제주농업학교로 옮겨졌다. 자유를 준다는 말에 사람들은 앞다퉈 트럭에 올라탔고, 타지 못한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다. 하지만 트럭 3대에 가득 탄 사람들은 제주시 박성내에서 집단으로 기관총으로 사살당하고 시체에 휘발유를 뿌려 불태워 버렸다고 한다.

제주농업학교에 도착하자 군인들은 갑자기 우리들 손을 뒤로 철사줄로 결박한 후 다시 굴비 엮듯 10명 씩 묶어 쓰리쿼터에 태웠습니다. 중간에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와홀리 출신 2명이 탈출했습니다. 철사줄이 모자라 그들만 새끼줄로 묶었는데 이를 풀고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린 것입니다. 박성내에 다다르자 지휘관은 "여러분이 곱게 죽어주면 가족에게 알려 시신이라도 찾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인들은 총살에 앞서 우리들의 주머니를 털어 돈과 귀중품을 챙겼습니다. 길가에서 1백 미터 떨어진 냇가의 바위 위까지 끌고가 묶여있는 10명 단위로 총을 쏘 떨어뜨렸습니다. 난 왼쪽 어깨와 오른 쪽 팔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잃지 않고 있다가 다음 사람들이 끌려오는 불과 3~4분 사이에 철사를 끊고 바위 틈에 숨었습니다. 나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더 있

있는데 꿈틀거리다가 군인들에게 발각됐어요. 군인들은 곧 휘발유를 뿌려 사람을 태웠습니다. 난 새벽까지 숨어있다가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때 눈이 많이 내렸고 무척 추웠는데 맨발엔 동상이 걸렸고 너털너털해진 팔에선 피가 계속 났어요. 아무 것도 먹지 못한 채 원당봉을 등대 삼아 밤 시간만을 이용해 5일만에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¹³⁾

이 날 희생된 사람들은 대부분이 조천, 신촌, 와홀 등 조천면의 주민들 150명 이상이었다고 하며, 와홀에서만 35명 이상이 희생되었다. 와홀 2리에서는 이원식(당시 24세) 1명이 확인되었다.

마을의 재건

해안 마을에서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웃드르 촌놈’이라는 냉대와 멸시 속에 성을 쌓고 보초를 서던 생활을 7~8개월 한 다음, 이번에는 모두 대흘 마을로 이주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중간간 마을을 초토화한 이후 어느 한 곳에 집단적으로 이주민을 정착시킴으로써 무장대와 의 연계를 차단하고 경계를 용이하게 하려는 전략촌 형성의 시도였다.

대흘 1·2리, 와홀, 와산, 교래, 궤뜨르 사람들은 지금의 대흘초등학교 자리에 길게 함바집을 짓고 거기서 생활하게 되었다. 물론 대흘 주위로 다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등짐으로 돌을 날라 성을 쌓고 보초도 서야 했다. 무장대의 세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었지만 아직은 안심할 만한 정도는

13) 제민일보 4·3특별취재반, 『4·3은 말한다』 제4권, 전예원, 1997, 407쪽.

김태준(당시 24세, 조천읍 신촌리 거주)씨는 1998년 작고하였다. 여기서는 당시의 현장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위의 증언을 재수록하였다. 앞서의 강태원씨의 경우처럼 4·3 당시를 증언해줄 사람들은 이제 다 죽어가고 있다. 4·3이 이제 50주년이 된 이 시점에서 4·3진상규명의 시급한 필요성이 여기에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요 증언자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 현재의 케프르 전경.

아니었는지, 여기에도 경찰초소가 있어 3~4명의 경찰관들이 근무하며 감시를 했다.

대홀에 성 쌓을 때는 조천면 중산간 마을 사람들이 전부가 가서 했지. 산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요즘식으로 하면 단독주택 높이 만큼 성담을 쌓았어. 대홀을 빙 둘러서 문만 한 곳으로 내고, 거기 문 닫아서 입초서며 살았지. 남자들은 순번제로 입초를 서고 여자들, 열서너살 난 아이들도 성담 귀퉁이 쪽에서 입초를 서났어. 성안에는 마을별로 구분을 해서 여기는 어느 마을, 저기는 어느 마을 살라고 해서 우리 케프르 사람들은 와홀 사람들 하고 같이 살았어.

(김경생)

그게 무슨 사람사는 집이라? 아프리카 원주민들 사는 거지 원. 그 똥통에 똥이 가득해도 양말이라도 신고 다녀졌어? 축사 마굿간같이 길게 집을 짓고 역새로 칸을 갈라 놓으니까 속에 누우면 남의 사는 것도 다 보이고, 저 집에선 우리가 다 보이고. 그래도 그 속에 살면서 애기도 다 생기기도 허대 원. 허허.

(고경림)

낮에는 성 안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보초를 서는 생활을 4년 하다가 1954년 9월, 한라산 금족 지역이 전면 개방되고 일반 주민의 외곽 성 경비가 해제될 즈음에 주민들에게 원래 살았던 마을에 가서 재건해서 살라는 조치가 내려졌다. 이때 비로소 타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비워두었던 중간 마을들이 하나 둘 재건되기 시작한다.

타향으로 소개간 주민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집과 농토를 잃은 데다가, 6·25 사변마저 겹쳐서 식량을 구하지 못하여 밀기울과 산나물, 해초 등으로 겨우 생명을 잇는 비참한 생활을 하였다. 본리가 폐촌된 뒤에 5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산의 폭도가 어느 정도 정벌이 되고 시국이 안정되어가자 국가의 도움을 얻어 대흘리 현재 대흘초등학교 자리에 함바집을 짓고 산간부락의 주민들을 이주시켜 공동생활을 하게 하였다. 4년 동안의 함바집 생활을 하던 중 1954년 국가의 도움으로 산간 5개 부락이 재건과 동시에 와흘리 주민도 고향에 다시 부락을 재건하게 되었다.¹⁴⁾

대흘 함바집에서 집단 거주할 때 정부에서는 이재민 신고를 받아 미제 미송 널판지를 집 지을 목재로 나눠주기도 했다.¹⁵⁾ 이 미송을 가지고 각기 자기가 살았던 마을로 돌아가서 살았던 터에 집을 지어 살기 시작했다. 배급으로 나온 미송은 한 집에 마차로 한 대 분량도 안되어 마루나 창문에 쓸 정도밖에 안되었다. 그래서 원목은 산에 가서 잘라다가 쓰기도 했다. 실제로 퀘뜨르가 재건되기 시작한 것은 1957년 경이 되어야 가능했다. 그때까지도 산에 잔류 무장대원들이 있어 교래리에 군주둔소가 있었

14) 대흘국민학교, 『향토지-대흘리, 대흘2리, 와흘리, 와산리』, 성심인쇄사, 1987, 104쪽. 여기서 '본리'는 조천읍 와흘리를 말한다.

15) 『난민정착(4·3사건 피해상황조사)』, 1955, 정부문서보존소 소장. 이 자료에는 4·3 이전에 고평동 15가구에 78명, 수기동 23가구에 121명이 살았으며, 피해상황도 고평동 15가구에 78명, 수기동 23가구에 12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증언자들의 공통된 기억은 양 마을 합해 40가구를 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자료가 정확한 근거로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임의대로 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다고 한다.

조천에 살다가 바로 올라왔지. 산에 무장대가 4명인가 6명인가 남았다고 할 때주. 그런 사람들이 올라와 무서워 했던 기억이 나. 그중에 여자도 한 명 있어났어. 그분은 와산이 고향인데 산에서 잡아 갔었다고 해. 지금도 어디 살아 있을 거라. 그후에 2년 쯤 있다가 완전히 진압이 되었던가. (김동규)

처음에 켜뜨르에는 6~7 가호 정도가 재건에 참여했다. 김동규, 이원일, 김순화, 조기석, 김임생 등이다. 이들 중에서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 사람은 김동규와 조기석 두 사람 뿐이다. 조기석은 원래 전라도 사람으로 그의 아버지 대에 제주에 내려와 켜뜨르에 살다가 지금은 대흘리에 거주하고 있다. 김동규는 지금까지 켜뜨르에서 살고 있다. 또 이원일(작고)은 켜뜨르를 재건해서 한 10년 정도 살다가 대흘리로 이사했다. '켄뜨르 귀막은 하르방'으로 불렸던 김임생은 켜뜨르에서 집 짓고 살다가 늪막에 제주시 삼양에 사는 딸네 집에 가서 살다가 거기에서 죽었다.

우리 시어머니 친정이 켄뜨르입니다. 거기 땅이 조금 있으니까 가서 농사 지으며 살았지. 버려진 땅도 개간해서 산디·메밀·고구마도 심고. 그때야 무슨 제초제가 있었나, 손으로 검질 메고 쇠로 밭 갈고. 노는 날이 어디 있어? 손도 다 갈라지고 밭도 다 갈라지고. 그때는 갓난 아이가 있을 때니까 부부가 한 사람은 일하고 한 사람은 애기 보고 빠듯하게 살았지.¹⁶⁾

16) 고인생의 증언. 고인생 할머니는 31세에 자기보다 나이가 열 살이나 많은 이원일씨를 남편으로 맞았다. “4·3 사건에 남자 씨가 말라서 그래도 남들이 붙여 주니까 늙은 하르방과 살았다”고 한다. 켄뜨르에 올라가서 재건하며 아이 셋을 낳고 살다가, 대흘에 친한 사람도 좀 있고, 박성내에서 죽은 시동생의 아들도 성화하고 하나까 켄뜨르 땅을 처분하고 대흘로 다시 내려와 버렸다. 이원일의 전처는 켄뜨르 불타던 날(10월 13일) 거기서 죽었고, 고인생 할머니의 전 남편은 인천형 무소로 간 후에 한 두 번 전지는 왔었는데 그 이후는 행방불명된 상태였다. 이원일씨는 그후로 대흘에 살다가 79세의 일기로 숨을 거두었다.

여덟 살에 사태를 만나 조천 소개 내려가서 8년 동안 어디 안 살아본 데가 없을 만큼 이 집 저 집 고생을 돌아다니며 했지. 사태에 일가친척 다 죽고 누님과 나만 남았어. 나도 그때 죽을 뻔 했는데 누님이 대밭으로 숨는 걸 보고 나도 따라가서 살아났지. 열 여섯살 때 다시 퀘뜨르에 와서 그후로 쭉 여기서만 살았어. (김동규)

물터진골이 재건 안된 까닭은

퀘뜨르는 몇 안되는 사람이거나 올라가서 재건이 됐지만 물터진골은 4·3 이후에 올라간 사람이 없었다. 그야말로 완전히 폐촌이 되어버린 것이다. 다만 그 지경이 목장지대여서 우마를 놓아 기르고 목초를 관리하는 장남(머슴)들만이 폐허가 된 집터에 집을 짓고 잠깐씩 살았을 뿐이었다.

그러면 왜 물터진골, 수기동엔 사람들이 올라가 재건을 하지 않았을까? 조천면에서도 알아주는 부자가 살았던 마을이 어째서 폐허 그대로 방치되어 버린 것일까?

그 대답은 오히려 단순한 데서 찾아진다. 모두 죽었기 때문이다. 대가 끊길 정도로 다 죽어서 올라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설령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몸서리쳐지는 살육의 현장, 그 황량한 벌판으로 가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올라가려고 해도 그들의 삶의 터전인 땅이 어느 틈엔가 야금야금 타인의 손으로 들어가 버린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람도 집도 땅도 모두 잃어 결국은 돌아갈 고향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성한 집안이 우리 밖에 없어 났어. 그러니 벗도 없는 데 가서 혼자만 어떻게 살아? (김경생)



▲ 물터진골의 새통물. 포크레인으로 파헤쳐 버려 물이 다 빠져버렸다.

사태 이후엔 물터진골에는 가보고 싶지도 않아. 전부 몰살해버리니까 거기
가 사람 살 데라고 생각도 안했지. 우리 백부님 땅은 '바농뽕디'에서 '죽은 지
그리오름'까지 말도 못할 정도로 넓었는데, 결국은 다 흐지부지되어 버렸지.

(김태석)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모양이다. 주인이 없어 관리
가 부실해진 땅을 지적도를 들고 다니면서 하나 둘 확인하고 사들인 자가
있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자기 소유로 만들어갔다.

그때야 돈 몇 푼이라도 주고 땅을 거뒀어? 배고프면 그저 십원에 또는 1원
씩에도 팔아먹는 사람도 있고, 죽어버린 사람 소유의 땅은 명의 이전만 하면
자기 땅이라났지. 물터진골이 전멸해버리니까, 그 땅들 중의 반은 거저 주운
거지, 임자가 없으니까.

(고인생)

조천에 강희봉이라고 있었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그 양반 집에 큰 창고가 있었지. 당시는 면사무소가 불타 버리니까 면에서는 강희봉이네 창고를 빌어서 양곡이나 비료 배급을 했지. 강희봉이가 그때 창고 책임자를 하면서 땅을 하나씩 하나씩 거둬 들인거야. 우린 배고프니까 돈 있는 사람에게 갈 수 밖에 더 있어? 가면 쌀은 공짜로 주냐? 솜옷 한 벌에 땅 하나, 쌀 몇 되에 땅 하나 이런 식이 되는 거지. 목초지 임야를 천평이고 이천평이고 하나 쥐가지고 쌀을 받는 거지. 쌀도 아니라 밀가루, 옥수수가루같은 거지. 당시는 땅이 돈가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차지해서 자기 명의, 마누라 명의, 아들, 손자, 며느리 명의로 다 분산해서 등기했어. 그것을 다 합하면 수십만 평이라.

(고경림)

1961년도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있었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의 명의를 정확히 하기 위한 법이었다. 어느 시대에나 법의 맹점을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사례는 있게 마련인가보다. 강희봉씨도 이를 이용해서 땅을 개인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농지위원 보증인 세 사람만 세우면 권석재판을 통해 이전해 버리는 식이었다.

땅 소유자가 없을 때는 일단 명의 이전을 해놓고 재판을 거는 거라. 한 달이면 한 달 재판 일정을 공고해도 후손이 없는 집은 당연히 못 갈 거 아니냐? 그러면 권석재판으로 원고가 승소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땅을 이전하는 거라.

(김태선, 66, 조천읍 조천리)

이런 식으로 물터진꼴의 '죽은 자'와 '산 자'들의 땅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버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후회와 자탄의 세월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¹⁷⁾ 조천에서 퀘뜨르 가는 길인 신안동에서부터 와홀, 퀘뜨르 물터

17) 김만석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가 정신이상이 되었을 때 토지문서를 친척에게 줘버



▲ 물터진골의 마을터. 지금은 ‘우석목장’이 자리하고 있다.

진골에서 교래리까지 거칠 것 없이 내달리며 토지를 매수한 강희봉도 여러 차례 송사를 당했다고 한다.

이런 송사가 80년대 후반까지도 계속 있었지만, 대부분 강희봉에게 패소하였다고 한다. 이미 토지 매매문서에 분명히 도장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와홀리의 김모씨, 조천리의 김씨 두 사람 등이 패소하였지만, 땅을 되찾은 경우도 더러 있다.

군에서 제대하고 와 보니까 우리 아버지 명의로 있던 땅을 강희봉이가 다 이전을 했길래 싸웠지. 누구한테 샀냐고 판 사람 데려오라고 했어. ○○가 왔는데 그는 절대로 남의 땅을 판 적이 없다고 하는 거라. 그러면 강희봉이 너가 도둑놈이 아니냐, 왜 남의 땅을 들러먹느냐고 따지니까, 강희봉이는 실수로 그런 것 같다며 이전 비용 등 다 부담하고 땅을 내놓았어. (김태선)

리니까 그 친척이 그 땅을 전부 강희봉에게 몇푼 받고 넘겨버렸다고 한다. 지금은 그때 팔다 남은 땅, 그것도 미등기라서 못 판 땅 한 1천평 쯤 되는 것으로 4·3 때 죽은 일곱 분의 제사를 모시고 있다고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느 중산간 마을과 마찬가지로 물터진골과 케뜨르의 땅도 거의 외지인의 손으로 넘어가버렸다. 주민들은 80~90%가 외지인 소유라고 말하고 있다. 김태선씨는 물터진골에는 그의 형제 명의로 있는 것 말고는 거의 없다고 말한다.

70~80년대 부동산 투기가 극성일 때 강희봉씨도 많은 양의 토지를 되팔았다고 한다. 서울 사람에게도 팔고, 골프장 부지로 일본 교포에게도 팔고, 그래도 남아있는 땅 중에서 큰 덩어리에서는 지금 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동부산업도로를 타고 가다가 남조로 사거리 검문소 조금 전 길 왼쪽에 보면 '우석 목장'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강희봉의 아들 신춘기축병원 강윤훈 원장이 운영하는 목장이다. 지금은 강희봉의 손자(강한중, 34, 조천읍 와홀리)가 살며 축산에 종사하고 있다.

우석 목장 터¹⁸⁾는 원래 케뜨르와 물터진골 사람들 17명 연명으로 소도 놓고 목초도 재배하던 이른바 공동목장이었다. 강희봉이 소유권을 이전할 때 도장을 누르지 않았던 김두옥씨는 이 땅의 18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고소하겠다고 강하게 나가자 강희봉씨가 18분의 1의 지분을 다시 돌려주었기 때문이다.

남의 땅을 불법적으로 수탈한 것은 아니지만 대가에 비해 거의 공짜로 가진 것이나 다름없는 부의 축적. 4·3은 어떤 이에게는 이러한 부의 재생산도 가능하게 한 반면, 그러한 부정한 방법의 부의 축적은 현재의 마을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건해서 곧 올라온 때인데 서울 영감이라고, 서울에서 온 양반이 케뜨르 큰 폭낭 있는데를 중심으로 한 1만평 정도를 샀어. 그 양반이 거기서 축산을 한 10년 정도 하다가 그 땅을 한양대학교 재단에 팔았어. 한 30년 전의 일이지. 거기는 7~8 가구가 살았던 곳이라. 케뜨르 노른 자위 땅인데 거기가 개발이

18) 복계주군 조천읍 와홀리 299번지 일대.

되어야 케뜨르도 좀 더 발전할 수 있는데 딱 묶여 가지고.

(김동규)

맺으면서

중산간 마을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전기가 가설된 곳. 옥지 사람이나 사는 목장지대에 무슨 전기가며 군청에서도 할대하던 곳. 도로가 포장되지 않았던 때는 택시도 가지 않았던 중산간 오지.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와흘리 8반 고평동.

지금 케뜨르에는 16호가 살고 있다. 물터진골에는 1호. 케뜨르에는 4·3 때 살았던 집터나 올래가 어느 정도 보존되고 있다. 사람이 살았던 곳의 대나무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바람에 서걱대며 마을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물터진골에는 옛날 집터가 있던 곳이나 밭들이 다 포크레인으로 갈아엎어 목초지로 바뀌었다.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아예 없어져 버린 것이다. 다만 지금 강희봉씨 손자가 살고 있는 우석목장의 집터는 그 옛날 동촌에서 소문난 갑부라는 김유관의 집터라는 사실을 물터진골 출신 사람들만 증언할 뿐이다. '부자터'에 부자가 집을 지어 살고 있는 것이다.

식수로 이용했던 물터진골의 3백여 평의 새통물은 지금 철조망 울타리로 둘러쳐지고 입구는 철문으로 막혀 있다. 개인이 소유한 땅이니까 사람들이 나다니지 못하게 막아버린 것이리라. 이는 역사 속으로 묻혀버린 물터진골의 내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가려져 버리라는 뜻이겠지만,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한숨과 좌절로 점철된 역사는 언젠가 어떤 계기에서건 간에 스스로 펼쳐 일어나 진실과 진상을 낱알히 밝힐 것이기 때문이다. 짓눌린 한은 언젠가 분노로 폭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 새통물을 올라가는 길을 쇠창살문으로 가로막고 있다.

우리나라에 죽일 놈들이 몇 명 있어. 이승만 박사가 국부니 뭐니 하지만. 그 늙은이 조병옥이, 경찰청장인가 했던 놈. 하여간 그놈들이 법을 잡아놓고도 민들을 전부 죽인 놈들이야. 제주도 놈들은 다 빨갱이니까 다 잡아 죽여도 좋다고 계엄령 내려놓고 죄가 있고 없고 간에 다 죽인 놈들. 그놈들이 진짜로 죽일 놈들이야.

현장조사를 하면서 취재차 만난 어느 할아버지의 노기띤 분노의 절규였다. 평생을 불구로 살아온 이 분의 절규는 제주 섬의 한과 분노를 함축하고 있다. 삶의 공동체를 무참히 파괴당하고 50년을 반신불수로 살아온 제주도의 역사는 이제 다시 쓰여질 시점에 이른 것이다. 여기저기서 터지는 4·3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운동은 이런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언젠가 동부산업도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남조로 사거리에서 북쪽 퀘뜨르와 물터진골 쪽을 한 번 내려다 보기 바란다. 거기 사람이 살았던 자

리와 폐허가 되어 그 존재조차 땅 속에 묻혀버린 한의 역사를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진초록으로 물이 오른 초목 속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절규를 귀 기울여 들어주기를 바란다.

지금은 일년에 한 번 별초를 하기 위해 들르는 물터진골, 케뜨르 출신 사람들은 올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 그 후손들에게는 어떤 얘기를 들려주고 있을까. 여기에 조상들이 살다가 죽었노라, 지금은 집도 땅도 고향도 다 없어지고 아무 것도 없다고, 너희들이 이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그 억울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 물터진골과 케뜨르의 4·3희생자 명단

고인석(여 75)/김두일(73)/김동규 외조모(여 70대)/강진호(여 69)/장인선(여 65)/김춘택(여 65)/허태인(여 59)/김동규 외숙모(여 60대)/고평수(여 55)/김태행(55)/김명희(여 48)/김용화의 처(여 40대)/김용화의 아기(1)/박영화(여 33)/김인화(여 28)/현정돈(여 27)/김창효의 처(여 20대)/김창효의 딸(3)/김창효의 딸(1)/고성순(여 19)/강태순(13)/김정자(여 8)/김종찬(7)/강태범(4)/가태순의 동생(2)/김우석의 아들(3)/김우석의 딸(2)

이상 1948년 11월 13일 사망

김춘근(70)/김동규의 조모(여 70대)/강시원(38)/강일생(48)/강희원(43)/강일환(81)/김기봉(51)/김기봉의 딸(3)/김신생(여 48)/강태생(31)/김석홍(30)/김순옥(여 22)/안화순(여 22)/이원식(24)/김창범(19)/김길홍(25)/김시옥(17)/김인보(19)/김창언(32)/김태구(19)/차주백(17)/김창오(16)/김창옥(28)/김창중(25)/김창효(22)

이상 11월 13일 이후 사망자와 행방불명된 사람들